

1.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등장배경과 목표

- ‘세계관’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하여—의식·무의식중에—품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안경’과도 같이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모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포괄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 이다-아니다 (옳다-그르다, 맞다-틀리다), 좋다-나쁘다 (된다-안 된다)를 판단하는 사고방식

- 네덜란드의 기독교사상가 아브라함 카이퍼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비기독교인이나 초신자에게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이분법적 전제들 즉 교회—세상, 성—속 등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분법은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면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떠나거나 피해야 할 곳으로 이해한다. 반면 기독교세계관은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으로 본다. 또한 이분법은 ‘영역이나 직업 등과 관련해서도 성—속을 구별하는데, 예를 들어 성직이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반면, 갑근세나 소득세 등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 ‘세상일’로 간주하곤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한 뼘도 없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 유명한 말은 이처럼 세상을 성—속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자 극복되어야 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독교세계관의 근본적인 시각을 요약한다.

2. 기독교세계관의 기본 구조(앵글) 및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 → 3종의 필터 또는 앵글

- 기독교세계관 구조 : **창조-타락-구속(-완성)**인데, 이는 성경의 흐름을 가장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창조]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이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타락]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 선한 창조세계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죄로 인한 결함은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죄에서 자유로운 곳은 창조세계 안에 아무 곳도 없다.

단,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에 인간이 자발적·의도적으로는 따를 수 없게 된 것이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죄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들과 인간들의 세상에게는 창조의 선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lready, but not yet)

- 기독교인은 기독교세계관으로(=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세상 전체 뿐 아니라, 세상의 각 분야와 영역(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등), 그보다 더 작은 관점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창조—타락—구속** 가운데 어느 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 관점 모두를 동원하여, 세 앵글로** 바라본다는 의미다. 즉 어느 하나의 대상이나 명제/진술을 **세 앵글을 통해, 3번 보듯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창조-타락-구속’ 역시 ‘세상/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앵글이다. 성경적으로 세상 전체를 보려면, 한 마디로는 안 되고 세 마디를 해야 하는데, 그 각 앵글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때, 한 방에 시원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적어도 **세 마디**를 해야 한다. ①첫째는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원래의 선한 모습, ②둘째는 타락으로 인해 원래의 선한 모습이 가려진 채 현재 만연되게 드러나는 왜곡된 모습, ③ 셋째는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그 배후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창조의 선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진술이다.

· 창조—타락—구속이라는 다소 무거운 용어 대신,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 세 앵글을 부담 없이 적용하여 생각하기 위해 '원래—그런데—그래서'라는 세 부사를 말할 수 있다. 어느 영역이든, ①원래는 이러저러한 것인데(창조), ②그런데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왜곡·변질되어 있고(타락), ③그래서 이러저러한 조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구속사역에의 동참)는 식으로 세 번을 말해보는 것이다.

· 주의할 점은...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질서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왜곡된 질서라는 점이다. 즉 기독교에서 볼 때 '타락'(그런데)의 관점이 세상에서는 '정상' 혹은 '원래'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질서에 잘 적응하여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목도 필요하다. (→ 교차로에서의 삶)

3. 우리가 처한 실존적 상황(=교차로에서의 삶)과 그 상황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선교적 대면)

· 모든 문화 공동체는 집단생활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모종의 이야기'(즉 세계관)를 공유하고 있다.

· 지난 수 세기 동안 서구 문화를 형성해 온 세계관은 '모더니즘' 혹은 과학적 인본주의인데, 이는 다음 4가지를 신봉한다. ①진보(역사는 진보한다), ②이성(진리의 유일한 기준), ③과학 기술(문제해결 & 진보의 수단), ④사회의 합리적 질서(이성에 의한)에 대한 신앙이 그것이다. (해방 이후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도 모더니즘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다!) 한 마디로 모더니즘은 세상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특히 과학 기술을 통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이 점점 더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향해 진보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모더니즘은 최근에 포스트모더니즘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더 나은 세상'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둘은 모두 인본주의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그러한 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에 있다.)

· 문제는 모더니즘이 또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경 이야기처럼 모더니즘도 세상의 유일한 참 이야기로 자처한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은 성경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 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 두 이야기의 교차로에 서 있다.

(단, 두 부류의 인간이 교차로에 공존(×)한다는 말하기에 앞서, 우선은 한 개인 안에 두 세계관—창조-타락-구속의 성경이야기 vs. (&포스트)모더니즘의 인본주의 이야기—이 교차(○)한다는 의미임)

↳ 우리는 성경을 세상의 참 이야기로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세상 문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이다. 그 문화의 제도, 관습, 언어, 관계, 사회양식 등과 맞물린, 그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 이 교차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이에 대한 대답은 두 이야기 중 어느 쪽을 양보할 수 없는 기초이자 세상의 참 이야기로 보는가에 달려있다.

① 선교적 대면 (○)

· 성경 이야기를 참 이야기로 봄 → 성경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됨.

↳ 공동체가 공유해 온 종교적 근본 신념들이 도전을 받고,

복음이 그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도록 삶을 영위해야 함)

↳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와 살고, 그 이야기에 따라 실천하라고 사람들을 부르게 됨.

② 타협 (X)

· '무의식중에' 세상 이야기를 삶의 기초이자 참 이야기로 받아들임.

↳ 교회는 복음을 그 세상문화 이야기 속에 끼어 맞추 수 밖에 없게 됨 ('복음을 편입시키는 죄')

↳ 복음이 변질되어, 부수적인 자리로 밀려남 (주변화 → 공적 가치 상실 → 참 진리가 아니게 됨)

↳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치와 타협&종속되고, 결국 불충실해질 수밖에 없음.

<끝>